제484호 (2010-16) 2010. 7. 13

e-KIET 산업경제정보

아시아 무역의 성장과 역내 협력방향

[요 약]

◦ 지난 20년간 이어진 아시아 무역의 번영은 중국의 등장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과 역내 무역의 활성화에 기인
  -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 허브 역할에 더하여 국내수요 창출을 통해 역내 무역의 자생적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 중국 중심의 분업체제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역내 무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의 31.7%에서 2008년에는 42.0%로 상승
  - 아시아 역내 무역은 부품 등 중간재 무역이 주도해 온 결과, 부품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여 NAFTA(26%)나 EU(17%)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

◦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성장의 수출의존율이 높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
  -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의존율은 시장통합이 완성된 OECD 유럽국가들의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 아시아 무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의존과 상품생산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
  -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수요 확대와 EC형의 시장통합을 통하여 역내 무역이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 역내 수직분업에 의한 무역이 단순 가공생산 및 수출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확산되도록 아시아 기업의 역량을 강화
  -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가 역내 시장 통합과 역내 무역을 규율하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일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이 필요

KIET 산업연구원

▫ 아시아 무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역동성 발휘

○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은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했음.

– 아시아 신흥수출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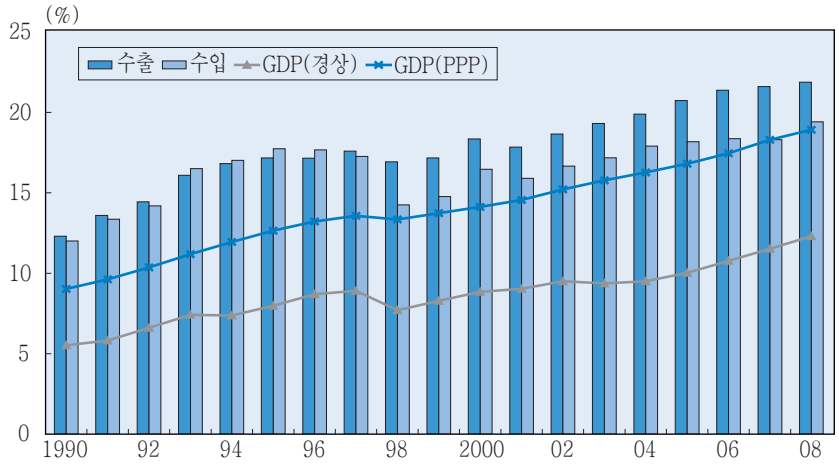
–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례적으로 늘어났음(〈그림 1〉 참조).

○ 아시아 무역의 번영은 중국의 등장에 따른 아시아 분업구조의 재편과 역내 무역의 활성화에 기인함.

– 1980~90년대에 아시아 지역의 분업구조는 일본이 선도하고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뒤를 쫓는 '기러기 무리형'(Flying Geese) 분업구조에 의존함.

–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수출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아시아 분업구조는 중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수직분업이 주도하는 '가치사슬형'(Value Chain) 분업체제로 변화함.

〈그림 1〉 아시아 신흥수출국[1]이 세계 수출입 및 소득[2]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9 Update.
주 : 1)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5개국 대상.
2) GDP(PPP)는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 과거 일본주도형 분업체제에서는 주로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중급 및 저급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기술력에 맞는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구조였음.

○ 중국 중심의 새로운 분업체제에서는 각국의 기술력에 따라 연구개발과 부품·소재 생산이 특화되고, 주로 중국에서 완제품이 조립·생산되어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국제분업형 구조로 발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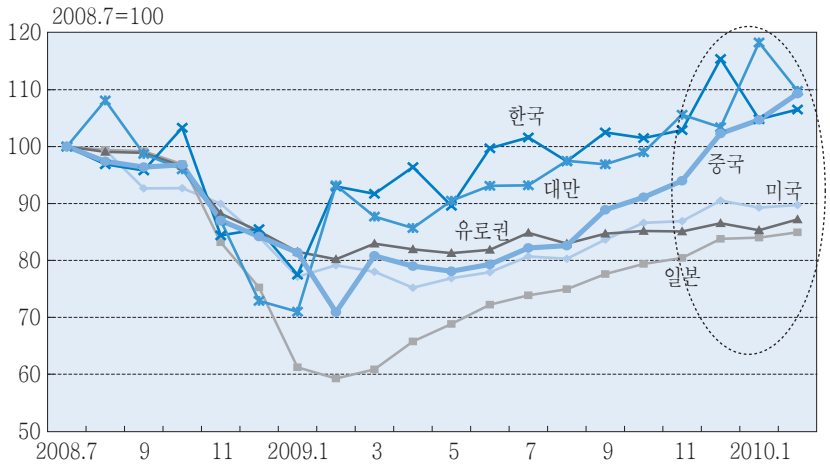
– 아시아 국가 간 무역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분화함에 따라 역내 무역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선진국의 최종수요 변화로 발생하는 아시아 무역의 변동성은 더욱 커짐.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아시아 신흥수출국의 무역은 시차를 두고 빠른 속도의 침체와 회복을 보이는 역동성을 나타냄.

–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 유로권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주요국의 재고순환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먼저 급반등하는 추세를 보임.

– 올해 들어서면서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은 대부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임(〈그림 2〉 참조).

〈그림 2〉 글로벌 경제위기와 주요국의 수출물량 추이



자료 : Asian Development Bank 및 Netherlands Bureau of Economic Policy Analysis.

▫ 아시아 무역의 회복과정에서 중국의 이중적 역할이 크게 기여

○ 2000년대 이후 세계 수출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의 수입수요 →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 → 아시아 신흥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로 이어지는 동조화가 심화됨.

– 중국의 무역 허브 역할이 약했던 2000년대 초의 선진국 경기침체기에 G2(미국, 유로권)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나 중국에 대한 아시아신흥국들의 수출은 비교적 작은 폭의 변동을 보임(〈그림 3〉의 실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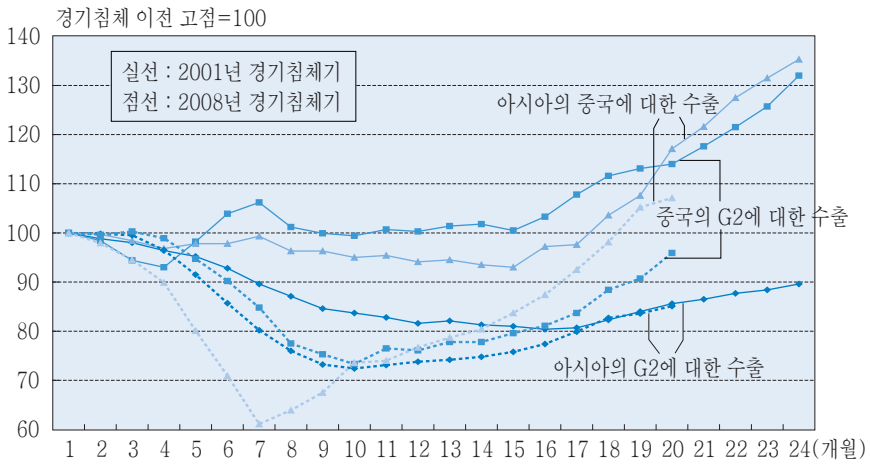
– 중국의 무역 허브 역할이 한층 강화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는 경기침체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이나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변동 폭이 매우 커짐(〈그림 3〉의 점선 참조).

–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고점 대비 60%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V자형 패턴을 나타냄.

○ 〈그림 3〉에서 2008년 경기침체기에 중국에 대한 아시아신흥국의 수출이 G2에 대한 중국의 수출에 비하여 변동성이 훨씬 커진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됨.

– 하나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신흥국 간의 수직분업이 더욱 진전되어 역내

〈그림 3〉 아시아신흥국의 무역 연계와 변동성 비교[1)2)]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April 2010.
주 : 1) 아시아신흥국은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 11개 주요 수출국을 의미함.
2) 그림에서 아시아의 G2(미국, 유로권)에 대한 수출에서는 중국이 제외되고, 아시아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홍콩이 제외됨.

중간재 교역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결과, 분업의 연쇄효과로 인하여 역내 수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증폭되었기 때문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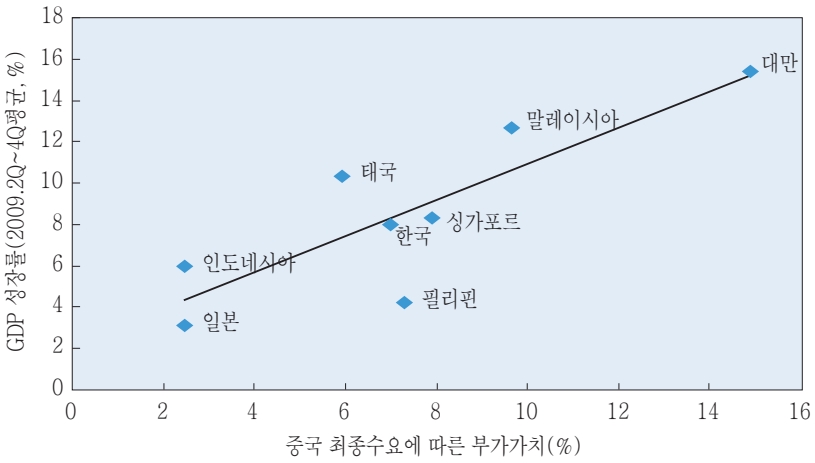
– 다른 하나는 중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의 국내 최종수요가 늘어나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 회복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임.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역할은 선진국시장의 수요를 중간에서 전파하는 가교 역할에 더하여 중국 스스로의 수요창출에 의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실제로 2009년 들어 아시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중간재 이외에 투자재와 소비재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빠르게 늘어남.[2)]

– 2009년 이후의 경기회복기에 중국의 최종수요에 따른 부가가치가 큰 국

〈그림 4〉 중국 최종수요에 따른 부가가치 및 GDP 성장률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April 2010.

1) 전자·통신제품과 같이 수직분업의 정도가 높은 상품의 무역액이 증가(감소)하면 분업의 연쇄효과로 인해 중간재 무역액이 비례 이상으로 증가(감소)하여 전체교역 증가(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 이에 관한 논의는 Kei-Mu Yi,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the Role of Vertical Specialisation",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Murky Protectionism, and the Crisis*,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09 참조.

2)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금액 기준)을 다음 그림에서 보면 전고점에 비하여 절반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곧바로 회복하여 전기전자(중국 수출수요 비중이 높음)와 기계류(중국 내수용 비중이 높음)의 경우는 올해 들어 전고점을 훨씬 넘어서는 저력을 보였음.

가일수록 GDP 성장률이 높아진 사실은 최종수요자로서 중국이 아시아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시사함(〈그림 4〉 참조).

▫ 아시아 역내 무역은 수직분업에 의한 중간재 무역이 주도

○ 아시아 신흥국가 간의 역내 무역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달리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 역내 무역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한 각국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기반으로 주로 민간기업들의 직접투자, 기술이전, 생산기지 이전 등을 통해 유발됨.

– 시장통합과 수평분업이 무역 성장의 원천이 된 EU와는 달리 아시아 역내 무역은 국가 간 생산분업을 통하여 무역이 창출된 점에서 NAFTA와 유사하나 역내 무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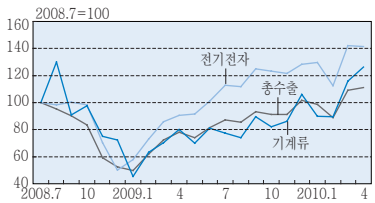
○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시장의 역내 무역은 중국의 등장을 배경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31.7%에서 2008년에는 42.0%로 높아졌음.

– 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 비중은 시장통합을 이룬 EU에 훨씬 못 미치나 NAFTA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임(〈그림 5〉의 왼쪽 참조).

– 역내 국가 중 중국의 경우는 세계시장에 대한 무역 허브 역할로 인하여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이 크게 늘어나 역내 무역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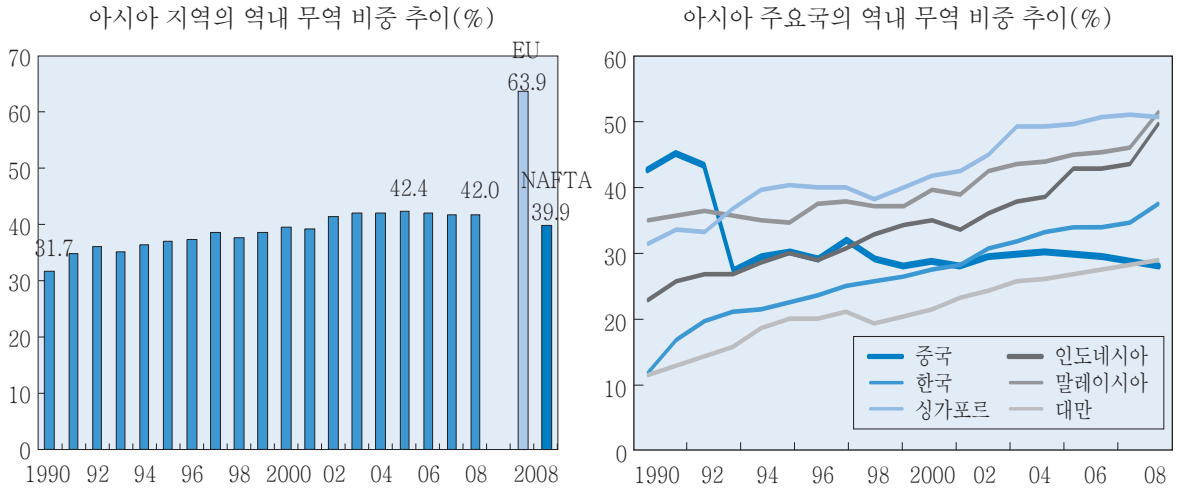
–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과 중국으로부터의 최종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1990~2008년 기간 동안 역내 무역 비중이 2~3배 정도 높아짐(〈그림 5〉의 오른쪽 참조).

○ 역내 국가 간 수직분업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부품 무역의 비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그림 5〉 아시아 신흥국의 역내 무역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9 Update.

–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 간의 부품 무역이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005/06년)은 40.1%로 나타나 NAFTA의 25.6%, EU 15개국의 17.2%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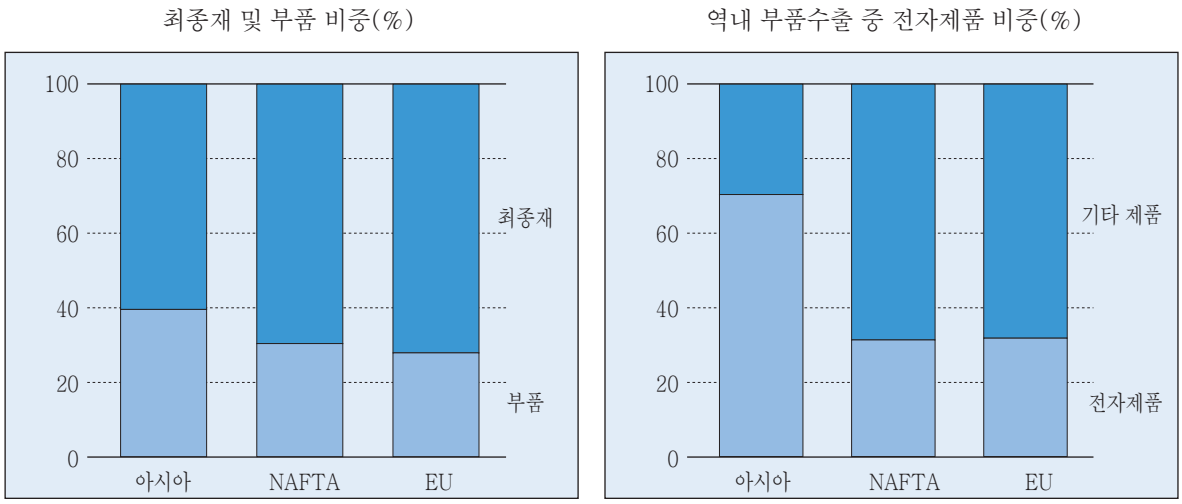
○ 부품 무역을 통한 역내 분업은 부품의 모듈화와 조립생산의 발전 등으로 국가 간 생산분업이 쉬워진 전기·전자제품 및 기계류 분야에서 두드러짐.

– 앞에서와 비슷한 분석에 따르면 SITC 7(기계 및 운수장비) 제품에서 아시아 국가(일본 포함)들의 역내 부품 수출 비중은 40%에 달하여 NAFTA와 EU의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지역의 경우 부품 수출 중에서는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해 세계 IT제품의 공급기지인 중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자부품 수출이 수직분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함(〈그림 6〉 참조).

3) Prema-Chandra Athukorala and Jayant Menon, "Global Production Sharing, Trad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Trade Flows in East Asia", ADB Working Paper, No. 41, January 2010, Table 4.

〈그림 6〉 주요 무역권의 역내 수출구조 비교(2007년, 기계 및 운수장비)



자료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croeconomic Review*, April 2009.
주 : 1) 아시아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0개국 대상.

▫ 해외수요에 대한 수출의존율은 아세안 국가들이 여타 지역보다 높아

○ 무역이 수직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의존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 등 단순한 무역통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해외수요에 의해 유발된 각 단계별 수출 부가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4)]

– 이 경우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외수요에 의해 유발된 각국의 수출 부가가치액을 계산하여 수출의존율을 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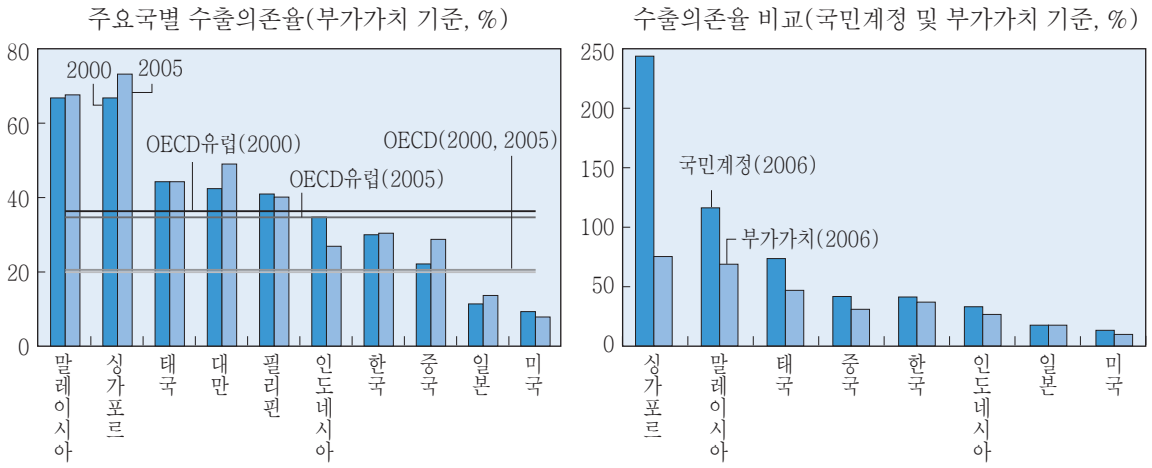
○ 부가가치 산정 방식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의존율을 계산한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출의존율이 여전히 높고, 2000년대 이후에 대체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의존율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는 시장통합이 완성된 OECD 유럽국가들의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음.

– 중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이 1인당 소득이 높거나 경제규모가 커서 국내수

4) 국제수지나 국민계정상의 수출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의존율을 계산하면 이중계산 등으로 인하여 해외수요로 인해 유발되는 순수한 국내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수출의존율보다 높아지게 됨. 따라서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이 활발하여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국가의 수출의존율은 어느 통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됨. 보다 자세한 논의는 G. Pula and T. Peltonen, “Has Emerging Asia Decoupled?”, ECB Working Paper, No. 993, January 2009 참조.

〈그림 7〉 아시아 국가의 수출의존율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Asia and Pacific*, April 2010; G. Pula and T. Peltonen, "Has Emerging Asia Decoupled?", ECB Working Paper, No. 993, Januar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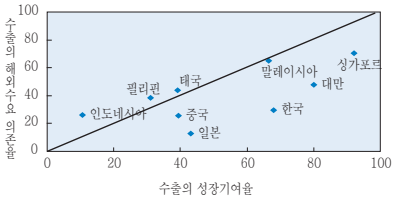
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의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7〉의 왼쪽 참조).

- 국민계정상의 수출과 해외수요에 대한 국별 부가가치로 계산한 수출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수출의존율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크게 나타남[5](〈그림 7〉의 오른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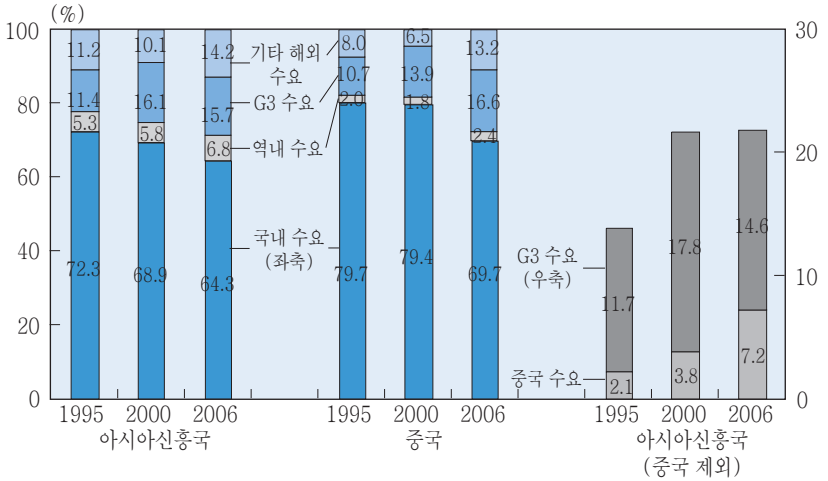
○ 〈그림 8〉은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별 의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역내 총부가가치의 2/3 정도는 국내수요에 의존하고 나머지 1/3은 해외수요에 의존하고 있음.

- 지역별 해외수요에 대한 수출의존율을 보면 역내 수요 6.8%, G3(미국, EU, 일본) 수요 15.7%, 기타 역외 수요 14.2%임(〈그림 8〉의 왼쪽 그래프 참조).

5) 이에 따라 국민계정상의 수출액으로 계산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대체로 해외수요에 대한 수출의존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됨. 극단적으로 일본과 같이 내수가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수출의존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이보다 4배 정도 높음(아래 그림 참조,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April 2010).



〈그림 8〉 아시아 신흥국[1]의 수요별 의존율 변화



자료 : G. Pula and T. Peltonen, "Has Emerging Asia Decoupled?", ECB Working Paper, No. 993, January 2009.

주 : 1)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의 9개국

○ 1995년과 2006년을 비교해 보면 해외수요 의존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시아 신흥국들이 국제분업체제에 더 긴밀히 통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에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은 역내 수요와 G3 이외의 기타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진 반면, G3 선진국에 대한 의존율은 낮아져 보다 다각화된 분업체제로 편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서도 G3에 대한 수출의존율이 꾸준히 늘어나 1995년의 10.7%에서 2006년에는 16.6%로 더욱 높아짐(〈그림 8〉의 중간 그래프 참조).

–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선진국시장의 수출기지로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G3 선진국에 대한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수요를 잠식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음.

– 대신에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은 역내 분업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원자재,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율 상승이 G3에 대한 수출의존율 하락을 충분히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8〉의 오른쪽 그래프 참조).

▫ EC형 시장통합과 수평무역의 확대를 위한 역내 협력 필요

○ 1990년대 이후 아시아 무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아시아 집적회로(Asian integrated circuit)형 수직분업에 의해 주도되어 옴.

– 저렴한 노동력과 부품 단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해 온 아시아 무역은 역내 무역과 역외 무역이 동시에 확대되는 상생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함.

○ 수직분업과 다국적기업 중심의 하청구조로 구성된 아시아 무역구조는 대내외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발전적 변화가 요구됨.

–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아시아 무역은 역내 수직무역을 매개로 선진국 수요에 종속된 네트워크화가 더욱 심화되어 대외적 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더욱 커짐.

– 대내적으로는 앞으로 역내 각국의 기술과 상품을 둘러싼 비교우위 질서가 복잡해져 수직분업의 한 축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음.

○ 수직분업의 중심 축인 중국 경제의 내부적인 변화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기존의 분업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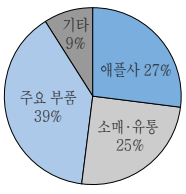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 상승, 다국적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와 규제 강화 등은 기존의 분업체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됨.

○ 아시아 무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무역 확대가 기술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가공무역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것임.

–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수출되는 글로벌 제품의 경우 국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의 R&D, 기술, 마케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큼.[6)]

6)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아이팟(iPod)의 경우 미국시장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수익 배분구조를 보면 애플사나 중간 유통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품이나 중국 현지 조립 등 개별비용의 비율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오른쪽 그림 참조, 자료: Greg Linden et al., "Who Captures Value in a Global Innovation System? : The Case of Apple's iPod", PCIC, June 2007).

애플 아이팟의 수익배분 구조(2005년)
(미국시장 소매가, 299달러 기준)



- 역내 가공무역을 주도하는 중국의 경우 수출상품의 기술집약도만으로 볼 때는 과거에 비하여 수출고도화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임.[7)]

◦ 앞으로 아시아 무역이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의존과 상품생산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수요 확대와 EC형의 역내시장 통합을 통하여 역내무역이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역내 수직분업에 의한 무역이 단순 가공생산 및 수출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의 핵심인 R&D, 상품기획, 디자인, 첨단부품 생산 등으로 확산되도록 아시아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현재 아시아 지역은 역내 무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는‘ 사발 국수(Noodle Bowl)형 ’ 지역주의가 만연하여 제도적으로 EU나 NAFTA에 비하여 취약함.

- 두 나라 간에 복잡하게 얽힌 무역협정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무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가 역내 시장통합과 역내 무역을 규율하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일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이 필요함.[8)]

윤 우 진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younwooj@kiet.re.kr
(02-3299-3101)

---

7) 중국의 수출상품 중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06년)은 50.6%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첨단 기술제품의 경우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Robert Koopmans et al.,“ How Much Chinese Exports Is Really Made in China ,”NBER Working Paper No. 14109, June 2008 참조).

8) 이에 관한 논의는 Richard Baldwin,“ Managing the Noodle Bowl : the Fragility of East Asian Regionalism,”CEPR Discussion Paper, No. 5561, March 2006 참조.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인 송병준 / 편집인 김휘석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
Tel : 3299-3114 / Fax : 963-8540 / www.kiet.re.kr